로스쿨 초시 합격수기

중어중문학과 홍○○ (2022. 02. 졸업)

기본 스펙	평균 평점	4.10
	외국어 성적	TOEIC-765/ HSK6-221점 / HSKK고급-67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진학을 위해서는 정량과 정성 요소가 존재합니다. 정량은 TOEIC(공인영어성적), GPA(학부 성적), LEET(법학적성시험)로 이루어져 있고, 정성은 논술, 자기소개서,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공은 어문계열로 법학과 관계가 깊지 않습니다. 학부 시절에 학교생활보다는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이 많았기에, 남들보다 법과 관련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지 않고 초시에 합격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대학교 2학년 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도전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우선 학점관리를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에는 그저 학우들과 어울리길 좋아해, 학점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C+ 이하로 재수강이 가능했습니다. 낮은 성적을 수습하기 위해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점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재수강이 가능한 강의는 모두 재수강을 하고, 계절학기를 들으면서 부족한 학점을 채웠습니다. 4학기 정도를 21학점을 들으면서, 매 강의를 A+를 받을 각오로 수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서접수 할 때 저의 GPA 점수는 약 96(4.1/4.5)점을 달성했습니다. 토익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신입생 모집부터 750점만 넘으면 되는 P/F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토익은 통과할 정도로만 공부했습니다.

로스쿨 진학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법학적성시험인 리트입니다. 한 문제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트 준비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부터 리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기출 문제를 들어가지 않고, 메가로스쿨에서 나온 '잘 고른 언어이해/추리논증 300제'를 풀었습니다. 리트의 출제 경향에 부합하는 PSAT, 수능, M-DEET, PEET 등의 문제들을 선택하여 만든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을 통해 지문을 시간 안에 풀고(독해력), 질문 유형에 따라 원하는 답을 찾는 연습(풀이 방식)을 했습니다.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루에 언어와 추리 각 5개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후, 메가로스쿨에서 출간한 'LEET 유형별 문제집'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학교에서 주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준비반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리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준비반에서 6명 정도 모아 스터디를 구성했습니다. 오전에는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고, 오후에는 전날 풀었던 기출문제 중 이해가 되지 않은 문제나 중요한 문제를 스터디원과 같이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1회 독 했습니다. 저는 총 3회 독을 했습니다. 회독을 거치면서 틀린 문제에 표시하고, 문제의 유형을 따로 적어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서 나의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했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사설 모의고사를 풀거나,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 등의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리트 시험은 단기적으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에 시험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점수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 머리가 잘 돌아가기 위해 가볍게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 당일에도 시험 직전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뇌를 깨워줬습니다. 하지만 시험 결과는 만족스럽지는 않아, 정성 요소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리트 시험이 끝난 후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자기소개서를 준비합니다. 다른 분들은 지인을 통해 자소서 첨삭을 받는 등 몇 번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첨삭을 부탁드릴 지인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혼자서 구성하고 작성했습니다. 원서 접수하기 직전 학교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상담실을 이용하여 교수님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소서에 넣을 경험이 저에겐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 자소서에는 법학과 관련된 활동은 오직 동아리 활동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정량요소가 비슷한 분은 가군, 나군에 모두 1차 합격을 했지만, 저는 가군만 1차 합격을 했습니다.

원서까지 접수를 끝내면, 로스쿨 진학의 마지막 단계인 면접이 남았습니다. 리트 점수와 자기소개서 모두 안정권에 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면접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022 김종수 로스쿨 면접 200주제'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준비 방법은 역시 책을 참조했습니다. 우선 면접 스터디를 구성했습니다. 면접에 나올 것 같은 주제를 한 파일로 정리하고, 한 사람당 한 주제를 배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자신의 주제의 찬반 중 하나를 선택해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 다른 스터디원의 주제에 대해 복습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주제를 단시간에 머릿속에 저장하게 됩니다. 주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문제를 여러 각도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이 2주 남았을 때는 스터디 진행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각자가 A4용지에 시사와 관련된 최근의 이슈들로 지문을 만들고, 무작위로 뽑아 실제 면접처럼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전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 발표할지 알기에 대비할 수 있었다면, 변경된 방식은 어떤 주제를 발표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공동체의 존속을 비교하는 등의 모든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 일반적인 쟁점을 중점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다른 스터디원들은 면접관이 되어 저의 쟁점을 유지 못 하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를 주장했다면, 면접관은 사회공동체의 존속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등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이 처음 주장한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이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흔들린다면, 주제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면접에서는 발표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세나 말의 속도 그리고 제스처 역시 중요합니다. 저는 말이 원래 빠른 편이고, 긴장하면 말이 더 빨라지게 돼서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인성 질문도 나오기에, 자주 나오는 질문은 미리 답변을 준비하고 면접장에 갔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당일 긴장이 되어서 머리가 새하얘 집니다. 면접 전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을 10분 안에 보여줘야 합니다. 최대한 긴장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뇌를 풀어줘야 합니다. 제가 받은 면접 주제는 '백신 의무화'와 '백신 패스'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고, 소상공인 보상제도와 재난지원금을 결합해 면접관님에게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합격을 했습니다.

로스쿨 진학에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 리트 점수로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을지 정해집니다. 따라서 리트 시험을 잘 보는 것이 로스쿨 진학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이제 1학년 혹은 2학년이 되는 분들은 리트보단 학부 성적을 잘 받도록 강의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 대학생 인터십' 등의 활동을 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넣을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전남대학교 중앙동아리에 법학전문대학원 준비 동아리인 '난파 법학회'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지인이 없어 동아리를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만약 따로 활동할 시간이 없다면, 일선 중 법학과 관련된 물권법, 헌법, 형법 등의 강의들이 있습니다. 학부 수업 역시 경험의 일종이니, 법학 수업을 들어 스토리텔링을 잘 구성하면 좋은 자소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여유롭다면 책을 읽는 것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리트에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나오기에 이를 대비하기 좋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로스쿨 입시 추천 도서'를 검색해 나오는 책을 시간 날 때마다 읽었습니다.

법조인이 되는 길의 시작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하는 방법은 타고난 머리가 아닙니다. 진학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법조인이 되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합격자 발표날까지 재수강을 통해 수습한 학점, 높지 않은 리트 점수,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한 번도 긴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합격만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후회하지 않게 모든 힘을 들여서 공부했습니다. 결과로 저는 졸업과 동시에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